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8.11 / NO.17



우리는 여기에 있다

독립예술영화관
스페셜

Independent
Film Cinema
Special

좋아하는 극장 있으세요?

개인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경희궁 근처에 인디스페이스가 있었을 때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느날 마지막 상영을 보고 스태프와 함께 불을 끄고 건물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불을 끄므로써 완전히 깜깜해지는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의 기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기에 극장이 있다, 불을 끄고서야 세계를 여는 공간이 쉬기 위해서 불을 끄는 시간도 있다, 영사기의 전원을 내리고 전등의 스위치를 끄는 사람이 있어서 극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 이 곳도 누군가의 세계, 이 세계에 빛을 쬐서 영화도 사람도 이만큼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NOW에서는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NOW 7호에서 지역 영화관의 이야기를 들은 뒤 꼭 3년만, 호수로는 10호만입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독립영화관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계속하려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들 극장은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인 동시에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지역 사회와 독립영화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필연은 공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하듯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인디스페이스와 에무시네마는 서울 도심에서 관객에게 선물이 될 만한 극장을 꾸리고, 오오극장은 대구의 영화인 아지트로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호남 지역의 독립영화관 두 곳, 광주독립영화관과 시네마라운지MM이 함께한 것이 무척 반갑습니다. 진작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땅 다지기에 힘을 실어 주는 이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RELAY TALK로는 장우진 감독의 <춘천, 춘천> 단편 개봉기가 실렸습니다. 마침맞게 이번 호의 테마와도 어우러집니다. 춘천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 <춘천, 춘천>의 제작을 맡은 봄내필름, 배급 및 홍보 담당 무브먼트, 상영공간이자 만남의 장이 되어준 인디스페이스, 그리고 ‘개봉’을 완성시켜 준 관객 사이 쌓인 특별한 추억과 이웃 작은영화관을 바라보며 담은 소망이 꾸밈 없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영화 말고 너’에서 만난 <파수꾼>이야기는 또다른 감흥을 줍니다. <파수꾼>이 교복을 벗고 학교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한 말투로 적은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른 영화 말고 너’의 매력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아도, 사적인 리스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 점이 말입니다. 매호에 알맞게 그려지는 토끼리의 극장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독립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 관객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일들이 칸칸마다 풍당풍당 펼쳐집니다. 극장에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나려나 조마조마(?)하면서도 설레어하는 얼굴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NOW 17호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볼 무렵 서울독립영화제2018 역시 개막합니다. 오프코스OF(F) COURSE, 궤도와 노선을 벗어난 질주에 ‘당연하지’ 외쳐온 서울독립영화제가 다시 트랙 위에 섰습니다. 같이 뛰어 주실 여러분과 축제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글 / 김송요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편집위원)

03

SPECIAL

04

인디스페이스 x 에무시네마

김도란 운영기획팀장, 손지현 프로그래머

08

광주독립영화관 GIFT

조대영 프로그래머, 이세진 프로그래머

12

대구 오오극장

김창완 프로그래머 x 유지영 감독

16

목포 시네마라운지 MM

정성우 대표

20 다른 영화 말고 너

<파수꾼>(윤성현)

21 RELAY TALK

장우진 감독

22 서울독립영화제2018 특별기획전

— 독립영화 아카이브 : 복원을 시작하다

23 TOON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Independent Film Cinema Special

독립예술영화관

NOW 17호의 주인공은 바로 극장입니다. 정확히는 전국 각지의 독립예술영화관입니다. 매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날마다 극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감독이나 배우보다도 그 얘기 듣기 어려운 것이 극장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극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은 영화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인데다 영화처럼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극장은 켜켜이 쌓인 시간을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품은, 영화와 관객의 접견지이기애, 언제나 매혹적인 흥성거림과 함께할 숙명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호에서 다루는 화제 또한 다양합니다. 관객으로 가서 누리는 ‘극장 전세넌 기분’과 전석매진사례가 극장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올지, 지역과 영화와 사람을 어떻게 만나도록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쉽사리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에 극장만이 줄 수 있는 묘미는 무엇일지, 독립예술영화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할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게도 되고 골똘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확실히 감지할 수 있는 건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보이는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그 외침, 움직임, 에너지를 함께 감각했으면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인디스페이스 x
에무시네마



소란한 종로3가 서울극장 안에서 서울아트시네마와 나란히 자리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그리고 광화문 도심 한복판 경희궁 숲길의 자연과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속 에무시네마. 다른 듯 닮은 두 극장이 만났다. 한 명의 관객으로서 또는 극장을 만들어가는 운영자로서 이야기 나누는 영화와 관객 그리고 극장에 대하여.

(▲ 왼쪽부터 김도란 인디스페이스 운영기획팀장, 손지현 에무시네마 프로그래머)

김도란(이하 김): 인디스페이스 기획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도란이라고 한다. 에무시네마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인디스페이스는 서울극장 내에 위치해 있어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제약이 많은 편인데, 에무시네마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한 편으론 부러웠다.(웃음)

손지현(이하 손): 에무시네마의 프로그래머 손지현이라고 한다. 인디스페이스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확실한 상징성을 띠는 극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독립예술극장이 있지만 독보적인 부분이 있다. 에무시네마의 프로그래머로서 그리고 인디스페이스를 자주 찾아가던 관객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다.

김: 에무시네마의 구성원과 말고 있는 업무가 궁금하다.

손: 극장의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홍보를 담당하는 프로그래머와 상영관 관리 및 행사 보조 등 극장 운영을 컨트롤하는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를 보조하여 DCP와 선재물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다. 담당 업무 외에 발권이나 상영관 청소, 관객 응대 등은 업무 구분 없이 함께 하게 되더라.

김: 인디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상시 돌아가는 극장 업무를 하다 보면 일을 구분짓는 것이 가장 어렵다.(웃음) 인디스페이스는 사무국장 겸 프로그래머, 기획운영팀장, 홍보팀장, 기술팀장, 시네마 매니저까지 다섯 명이다. 마찬가지로 직책에 맞는 업무 외 발권 및 관객 응대 등은 함께 담당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에무는 어떤지 궁금하다.

손: 건물을 총괄하는 대표가 있고 총별로 담당자가 있다. 지하 2층 미술관의 큐레이터, 지하 1층 공연장 감독, 1층 북카페 점장, 2층과 3층 영화관에는 내가 있다. 영화와 어울리는 공연을 함께 진행하고 싶거나 관련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싶을 때 전문적으로 진행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있으니 한 편의 영화를 넘어서 문화적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화, 책, 공연, 예술작품이 연결되는 시너지를 마주할 때 이 공간에서 일하는 재미를 느끼곤 한다.

김: 인디스페이스는 서울극장 안에서 서울아트시네마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세 극장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 에무의 문화적 확장성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인다.

손: 서울아트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 모두 좋아하고 자주 가는 극장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각각의 장르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다양한 극장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은가.



▲ 에무시네마

김: 에무시네마는 얼마 전부터 2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

손: 올해 8월부터 3층 강의실로 쓰이던 공간을 상영관으로 오픈했다. 2개관이 되면 관객도 2배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니 놀랍게도 3배, 많게는 4배까지 관객이 늘었다. 이전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2관이 오픈하자마자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고 있다. 예술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서울 및 수도권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볼 수 있는 영화의 선택지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 한 개 관으로 운영되는 인디스페이스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더 많이 상영하고 싶고, 더 오래 상영하고 싶은 영화들을 많이 만난다. 하지만 관객이 늘 많지 않다보니 상영관이 늘어나는 만큼 좌석을 늘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있었다. 꼭 2배가 아닌 3배, 4배로 관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 에무시네마는 최근 필름 시에스타 영화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어땠는가?

손: 에무시네마의 가장 큰 이점이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바로 옆에 경희궁 숲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영화 그리고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공연장이나 뒤뜰에서 공연을 하고, 영화와 어울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케이터링도 진행했다. <가모메 식당>(오기가미 나오코)을 보고 나오면 영화 속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루카 구아다니노)을 보고 나오면 복숭아를 나눠주는 등 영화가 끝나고도 그 여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캠핑의자에 앉아 별과 함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보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한 옥상 루프탑 상영이었는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많은 관객들이 찾아줘 보람차고 기뻐다. 루프탑 상영은 날이 다시 따뜻해지면 지속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



김: 관객은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즐거웠을 것 같다. 건물의 모든 공간을 속속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실 에무시네마가 발걸음하기 쉬운 위치는 아님에도 많은 관객이 찾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손: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극장의 위치를 묻는 내용이다.(웃음) 하지만 걸어오는 낭만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주변을 산책하다 갤러리를 구경하거나 영화 한 편 더 보고 가는 관객도 꽤 많다.

김: 에무시네마 프로그램이 궁금하다.

손: 예술영화 중심으로 상영하되 매주 화요일은 한국영화데일로 지정하여 한국독립영화만 상영하고 있다. 특별한 점이라면 에무시네마 근처에 대사관이 많아 외국인 관객이 꽤 있는 편이다. 외국인 관객이 한국독립영화도 무리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영자막 상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독립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찾아보는 외국인 관객도 생겼다.

김: 인디스페이스는 한국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다. 비교적 상영의 기회가 적은 한국독립영화들이 최대한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손: 인디스페이스에서 <춘천, 춘천>(장우진)을 단관개봉하며 첫눈이 올 때까지 상영한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 정말 낭만적이었다. 장우진 감독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작이 아니라 오래 묻혀 있던 보물 같은 작품을 발굴하여 개봉하는 의도도 정말 좋다. 인디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 <춘천, 춘천>은 제작 3년 만에 개봉했다. 인디스페이스가 개봉의 기회

를 갖지 못한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춘천, 춘천>은 배급사와 감독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단관개봉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인디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앞으로 독립영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보도록 한 좋은 시도였다. 첫눈이 올 때 증명하자는 건 오래오래 상영하고 싶어서 걸었던 공약인데, 첫눈이 금방 올까봐 걱정이다.(웃음) 에무시네마의 특별한 이벤트도 궁금하다.

손: 매주 일요일 함께 관람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살롱데뷰’와 매주 금요일 저녁 영화에 어울리는 카페의 신메뉴를 개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시네마&카페’가 있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인 ‘이브닝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이름에서부터 에무시네마다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비슷한 이벤트라도 특별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극장의 색깔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다. 인디스페이스는 ‘인디’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웃음) 관객과의 대화는 ‘인디토크’라 부르고, 매월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개봉 1주년을 맞이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인디돌잔치’라고 부른다. 에무시네마의 ‘살롱데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손: ‘살롱데뷰’도 에무시네마를 자주 찾아주는 관객과 함께 지은 이름이라 애착이 간다. 매주 일요일마다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고, 1층 카페의 단체석에서 맥주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보통 1~2시간정도인데, <버닝>(이창동)이나 <클레어의 카메라>(홍상수) 때는 4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 전혀 모르는 타인과 영화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그제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한다.

김: 사실 ‘인디돌잔치’가 관객들 인식에 자리잡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다. 1~2년 전부터는 개봉작을 감명 깊게 본 관객들로부터 ‘내년에 인디

돌잔치 투표해서 꼭 다시 보고 싶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 관객들이 정말 1년 후에 다시 찾아주면 고맙고 신기하다. 이 역시 영화가 가진 힘인 것 같다.

손: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정말 좋다. 매주 일요일마다 ‘살롱데뷰’에 참석하던 관객들이 같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영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네마 메이트가 되었다. 완벽하게 타인이지만 한 공간에서 한 편의 영화를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겁다.

김: 쌍둥이 자매 관객이 생각한다. 인디스페이스가 광화문에 있던 시절부터 극장 SNS에서 자주 보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극장에서 만나면 인사 나누는 반가운 관객이 되었다. 그러다 2년 전 인디스페이스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 때 후원캠페인을 통해 나눔자리 후원을 해주었고, 지금은 상영관 의자에 쌍둥이 자매의 이름이 적혀있다. 극장이 어려울 때 오랜 관객이 손을 내밀고, 극장은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손: 인디스페이스가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김: 감사한 만큼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지현 프로그래머가 극장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도 궁금하다.

손: 에무시네마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포르토>(게이브 클링거)의 상영을 결정할 때 내심 걱정했는데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우에다 신이치로)의 경우에도 입소문을 타며 상영관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선택했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김: 결국은 관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아줄 때 기분이 좋다. 매진이 되면 더 없이 기쁘고.(웃음)

손: 맞다.(웃음) 매진이라 돌아가는 관객들에게는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기분 좋다.

김: 요즘엔 IPTV나 넷플릭스 등 영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매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기에 아닐 것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손: 사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의 VOD가 풀리는 순간 마법처럼 관객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개봉한 <류이치 사카모토: 코드>(스티븐 쉬블)는 지금까지도 상영되고 있다. 이미 VOD서비스

를 시작했지만 극장 경험의 힘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다. 같은 공간에서 웃고 울며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경우 극장 안에 퍼지는 소리를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공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관객들의 반응을 체감하며 오랫동안 상영하고 싶다.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듯이 다른 어떤 매체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 비슷한 맥락으로 비교적 발길이 닿기 쉬운 멀티플렉스에서도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영화와 함께 우리만의 특별함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영수증이 아닌 인디스페이스만의 티켓부터 작은 이벤트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선사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 에무시네마야말로 영화와 함께 특별한 기억을 가져가기에 최적합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됐다. 공간을 활용하여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럽다.

손: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이곳까지 찾아와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나만의 보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마음 한 켠에 갖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된다. 같은 영화를 보고 가지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을 함께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관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

김: 얼마 전 <라스트 썬>(박배일)을 보았다. 국도예술관을 비롯한 독립예술영화관의 마지막 혹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야기한 영화인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영화와 관객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인디스페이스의 법인명이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이다. 잘 버텨서 법인명처럼 인디스페이스 2호, 3호를 개관해 전국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을 확대해나가고 싶다.

글&정리 / 김도란
사진 / 배선희



▲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가 일상의 선물이 되는 곳

광주독립영화관 GIFT



시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성과 계층, 연령과 직업,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지역과 국적, 인종의 벽을 뛰어넘은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또한 광주독립영화관은 지역에 있는 독립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영화제작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영화를 만들어내 시민들이 독립영화와 영화인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광주는 극장 15개, 상영관 112개를 갖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스크린을 확보한 도시로 알려졌다.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에서 독립영화를 함께 상영해왔지만, 상영관 중 나머지 대부분은 멀티플렉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광주의 뜻있는 영화인이 모여 (사)광주 영화영상인연대를 조직, 지난 4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독립영화 전용관 ‘광주독립영화관’을 개관했다. 광주독립영화관이 생기면서 맞은 편의 ACC 시네마떼끄를 비롯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관극장인 충장로의 광주극장까지, 광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화관람의 폭은 무척 넓어졌다. 광주독립영화관의 약자인 ‘GIFT(Gwangju Independent Film Theater)’라는 단어의 뜻처럼, 이제는 광주독립영화관이 시민들의 일상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독립영화관의 조대영, 이세진 두 프로그래머를 만나 개관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 왼쪽부터 이세진 프로그래머, 조대영 프로그래머)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조대영(이하 조):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 올해 7회째 광주독립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독립영화제에서는 1회부터 5회까지 집행위원장 겸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6회 때부터는 프로그래머로만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 신문에 영화평도 쓰고 있고, 다양한 모임을 진행 중이다.

이세진(이하 이):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올해로 9회를 맞은 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4년째 맡고 있다. 광주여성영화제에는 7년째 참여하고 있다. 가끔 연출부, 조감독 등 영화 현장 스태프로도 일한다.

개관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 광주독립영화관의 개관 과정은 어땠나?

조: 여러 지역에서 신규영화제가 만들어지고 자리를 잡을 동안 광주국제영화제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 광주국제영화제가 시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치르고도 사업비를 정산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지역 영화인들이 이를 묵과하지 않고 광주국제영화제가 더는 열리지 못하도록 힘을 보탤다. 이를 계기로 뭉친 지역 영화인들이 모여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를 만들었다. 이 연대에는 지역 영화인, 영화단체를 비롯해 광주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속해있다. 이렇게 모여 펼친 사업 중에 가장 가시적인 사업이 광주독립영화관 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영상 복합문화관 6층을 극장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줬다. 기존에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공간을 관리했었는데, 이 공간만 별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영진위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영화관을 운영 중이다. 우리 영화관 규모는 총 104석이고, 발권할 수 있는 좌석은 89석 정도 된다.

'광주' 하면 '문화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광주비엔날레도 진행 중이고, 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도 있고, 개관한 지 80년이 훌쩍 넘는 단관극장인 광주극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이 지역의 독립영화 현장이나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역 문화 커뮤니티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ACC에서 실험영화 아카이빙을 진행 중이고, 그 안에 상영관도 있다. 물론 ACC를 광주 지역만의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국가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연계하는 입장에서 '실험영화 입문 강좌'를 마련했다. 우리 영화관의 윤수안 관장이 실험영화를 전공한 동국대 정재형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우리 극장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열의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조: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자체가 커뮤니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 관련된 분들과 함께 모여 매달 첫 번째 일요일 5시에 영화를 같이

보고는 한다. 하반기에 모여 있는 영화제 여럿이 여기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내리 열린다. 이 극장 역시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주 토, 일요일에는 한국청소년영화제가, 11월 중순에는 광주여성영화제가, 12월 초에는 광주독립영화제가 열린다. **이:**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개관 83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이 그동안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서 광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독립영화를 꾸준히 상영하며 관객층을 넓혀 왔다.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극장이고, 오직 광주극장만을 보러 광주에 오는 분들도 있을 만큼 역사가 깊은 극장이다. 하지만 지방은 아직 서울과 비교했을 때 문화인프라가 적고 독립예술영화 관객층이 그리 넓지 않아 이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관이 생길 당시 관객 분산의 우려가 있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광주독립영화관은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전용관이라는 특성으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려고 한다. 광주의 영화 상영 폭을 넓히는 데에 우리 극장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광주극장도 그렇고 ACC 시네마떼끄도 우리 영화관 근처라서 예술영화, 실험영화, 독립영화 상영관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광주에서 제작한 혹은 제작되는 지역 영화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메이드 인 광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조: 광주독립영화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광주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광주에서 독립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일 것 같다. 지역에서 독립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가 잘 만들어졌든 아니든 더 많이 상영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하더라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진 로컬 독립영화는 사실 한 작품 한 작품 굉장히 귀하고, 그 자체로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광주 지역 감독에게 "영화를 만들기만 하세요, 우리 극장에서 무조건 상영해 줄 테니"라는(웃음) 응원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광주광역시 창작지원금 제도를 통해 작년에는 12편, 올해는 10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청소년 영화창작 교육 프로그램인 '사춘기 무비 하우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진행했다. <신기록>으로 제17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이경호, 허지은 감독이 12명의 지역 청소년과 <한 번쯤>이라는 영화를 만든 것이다. 지난 9월 시사회를 하기도 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실행 중계를 하기도 했다. 독특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 윤수안 관장이 사회적기업의 CEO이기도 해서 아이디어가 많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남북 정상이 만난 기념비적 사건이기 때문에, 윤 관장이 이걸 실행 중계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일 생중계를 끝 어다가 큰 스크린에 실행 영상을 상영했다. 지역예의 방송, 신문 기사를

비롯해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뜻이 있는 관객,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우리 영화관을 찾았다. 독립영화관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

곧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광주여성영화제가 열린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페미니즘 담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활동 역시 의미 있어 보인다.

이: 앞으로 지역 여성영화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광주여성영화제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영화제를 만든 사람들이 영화인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여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만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만나서 보자 해서 만들어졌다. 다른 지역의 여성 영화제를 비롯해 어떤 영화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다. 본인들이 깨우쳐서 영화와 영화제를 만들었고, 전문성을 떠나서 ‘우리의 영화이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시작한 것이 9회째를 맞았다. 현재는 3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참여단체로 함께하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를 공유하고, 영화를 함께 보기도 하고 각 단체의 회원에게 홍보도 한다. 또 지역의 여성영화를 발굴하자는 의도와 취지로 3년째 여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폐막작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일상사업으로는 광주여성영화제가 기획한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 산책’이라는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관객층을 넓히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 아직 개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 예정인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기본적인 일을 잘하려고 한다. 올해까지는 ‘저곳은 한국 독립영화를 꾸준히 트는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개관 이후 100일까지는 관객이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 극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광주 시민이 태반인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 100일을 기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너와 극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관객이 지인을 조직하고, 특정 영화를 선택해서 함께 영화를 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영화 관람을 마친 후에는 해당 관객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지인들과 토론을 이끌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 9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너와 극장’에 참여했다. 우리 영화관의 윤수안 관장, 광주독립영화협회 최성욱 대표,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위원장 등등. 이를 확대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목표다.

영화관을 운영하며 인상 깊었던 관객이 있나?

이: 백재호 감독의 가족 분들이 떠오른다. 감독님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사촌 등등 삼대가 백재호 감독님이 연출한 <대관람차>를 보러 왔다. 대가족이 우리 영화관에 방문한 건 처음이라 정말 인상 깊었다.

조: 유사한 경우가 이조훈 감독의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을 때다. 이조훈 감독의 동창, 가족들, 은사님까지 GV에 참석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 우리는 가족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다.(웃음)

독립영화관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영화관’이 더욱 특별할 것 같다.

조: 나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렵다.(웃음) 요즘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해졌지만 한 편의 영화를 오롯이 보는 방법은 극장에서 두 시간 남짓 꼼짝없이 스크린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독립영화를 1년 내내 수시로 상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그래머로서 영화제에 갈 때마다 ‘이 영화 정말 좋다, 우리 극장에서 상영하면 좋겠다’는 설렘이 있다.

이: 어릴 때 극장에 자주 갔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사람들에게 들어주는 일은 얼마나 멋진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내가 행복한 건가?’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한다.(웃음) 물론 나는 이 영화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른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버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런데 극장에서 일하다 보니, 우리 극장 영화 이외의 영화를 잘 못 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웃음)





신생 독립영화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영진위에서 인건비 일부를, 광주광역시에서 이 공간을 지원받고 있다. 물론 영사기사와 프로그래머만 있어도 극장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매표, 홍보 등 각 분야에 대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독립영화에 관심을 주는 관객 분들의 일 것이다. 더불어 극장 안팎에서 힘을 기울여 다양한 영화 제작, 상영을 함으로써 독립영화가 어둡고 무겁고 재미없다는 편견이 사라졌으면 한다.

조: 역량 있는 작품을 상영했을 때 느껴지는 반응이 아주 다르다.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영화를 개봉할 때 영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예술영화 등급분류와 독립영화 등급분류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독립영화의 경우에도 예술영화 등급분류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상영 시기를 놓치거나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극장은 독립영화로 인증받은 작품을 1년에 60% 이상 상영해야 해서, 이 등급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개선해 우리가 상영할 수 있는 영화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영진위 차원에서 영화 기획, 제작자들에게 이런 지점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역 독립영화관은 누군가에게는 ‘여행지’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영화관을 찾을 관객이자 여행자에게 광주의 공간을 추천해달라.

조: 광주극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형단관극장이라 직접 가보면 아우라가 분명 남다르다. 우리 극장 건너편 ACC에서는 그 어디에도 상영하지 않는 실험영화, 영화사의 고전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 하면 또 음식이지 않나. 우선 저희 광주독립영화관 근처의 식당 세 곳을 추천하고 싶다. 하나는 백만 전문점인 ‘일흥식당’, 7천 원인데 반찬 가지수가 10가지가 넘는다. ‘전라도에서 음식 한 번 먹었는데 대단하더라’ 하실 분들은 한 번 꼭 찾아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그 옆에 바로 ‘춘자 생태탕’이라고 있는데 생태 한 마리를 오롯이 탕으로 끓여 낸다. 중화 요리집중엔 ‘만리화’가 경쟁력 있는 곳이다. ‘녹두집’은 수제비로 시작한 음식점이고, 가격이 4천 원밖에 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맛있다. 녹두전, 굴

전도 훌륭하고 슬값도 저렴하다.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설렁탕 전문점인 ‘명덕식당’이라는 곳이다. 5천 원을 내면 설렁탕 한 그릇이 나오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이다. 세 군데만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웃음)

마지막으로 올해 남은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한다면.

조: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광주독립영화관을 운영한 지 5개월이 조금 넘었다. 사실 이 공간 하나만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에 입주한 것이 아니다. 건물의 2, 3층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2019년까지 광주광역시와 테마파크 업체와의 계약이 묶여 있어 그 공간이 텅 빈 채로 5년이 흘렀다. 2층과 3층에 영화 관련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포함해 광주독립영화관까지 이어지는 광주 지역의 영화 기반 공간을 만들고 싶다. 영화도서관, 영화 장비와 관련된 공간도 마련하고 싶고 그 밖에 시사실, 동아리방도 꾸리면 좋을 것 같다. 영상 관련한 다양한 단위의 공간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올해까지는 하반기에 영화제가 모여 있는데, 그 영화제를 치르면서 동시에 틈틈이 한국 독립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내년 2월이나 3월 즈음에 일본 독립영화 중 이마무라 쇼헤이, 스즈키 세이준, 신도 가네토 등등 감독의 영화를 일본문화교류재단과의 협업으로 상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 연말에는 우리가 선정하는 한국독립영화전을 열어볼까도 생각하고 있다. 이 밖에 목표는 역시 운영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글&사진 / 유정미

오롯이 대구 오늘의 영화 오붓한 극장

대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지난 2015년 55석 규모의 단관극장으로 개관한 오오극장은 어느덧 영화를 사랑하는 대구 사람들의 아지트가 됐다. 시내의 즐비한 영화관들이 하나 둘 멀티플렉스 간판을 달게 된 대구에서 한국 독립영화 상영을 최우선으로 둔 오오극장의 존재감은 남다르다. 대구의 관객들에게는 물론, 대구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들에게도 오오극장은 특별한 에너지이자 든든한 쉼터다. 오오극장의 김창완 프로그래머와 대구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드는 유지영 감독이 나눈 대구, 극장, 영화 이야기.

(▲ 왼쪽부터 오오극장 김창완 프로그래머, 유지영 감독)

유지영(이하 유): 우리 먼저 극장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오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고, 언제 가장 많이 오나요?

김창완(이하 김): 20~30대 여성 관객층이 많아요. 토요일에 제일 많은 관객이 오고요.

유: 오오극장에서 올해 가장 많은 관객이 본 영화는 뭐예요?

김: <소공녀>(전고운) 아니면 <수성못>(유지영)일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유: <너와 극장에서>는 잘 됐어요? 영화를 보고 오오극장에 는 사람이 많다고 들어요.

김: 유지영 감독에게 감사하죠.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너와 극장에서> (유지영, 정가영, 김태진) 를 상영하면서 오오극장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죠. 영화를 이곳에서 찍었다는 자체로도 좋은데, 극장 이름과 공간도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유: 대답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간이니까 어떤 걸 물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는 것? 저도 모르는 것?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인터뷰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웃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오오극장은 창작자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오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존재감이 있어요.

김: 창작자 중심이 되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웃음) 감독들에게 영사 시스템을 갖춘 공간에서 본인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좋아요. 이전엔 아트홀이나 빈 공간을 대관하고는 했는데, 이젠 다들 테스트할 때 여기 오면 되니까.

유: 수성못도 오오극장에서 기술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꼭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이 공간이 주는 존재감 자체가 크다고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김: 모임 때는 여기에서 만나니까.



유: 이전에는 주변에서 영화하는 사람을 못 찾아서 서울로 갔는데, 이제는 오오극장이 없으면 다 뿔뿔이 떨어져 모르고 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 오오극장이 2015년에 개관하고, 그 해에 <수성못>을 찍었죠?

유: 제가 2009년에 홍익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구에서 나고 자랐는데 집을 떠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전에는 대구에서 영화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필름메이커스에 글을 올려서 단편을 찍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인적 인프라가 없었어요. 대학에서 졸업 작품 찍은 후에 대구에 내려왔어요. 그때 대구에 백승빈 감독이 있다는 얘길 들어요. 제가 백승빈 감독이 찍은 <장례식의 멤버>를 엄청 좋아해서 바로 연락을 해 봤죠. 그렇게 백승빈 감독이 최창환 감독을 소개해줬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지원해보라고 조언을 했어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내려와서 <수성못> 조감독인 김정원을 알게 됐고요. 놀랍게도 다들 아는 사이더라고요. 대구에도 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김: 2008년이 딱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최창환 감독하고 오필승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찍어서 대구단편영화제에 나가고, 그때부터 조금씩 강의도 시작했어요. 오오극장이 2015년에 개관했고, 유지영 감독이 <수성못>을 찍고.

유: <수성못> 찍으면서 김정원 조감독을 통해 <맥북이면 다 되지요>의 장병기 감독, <나만 없는 집>의 김현정,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의 고현석 감독을 알게 됐어요.

김: 그해 연말에 고현석 감독이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찍었죠. 2015년이 참 중요하네요.

유: 감독들이 오오극장에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업으로 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당장 작업을 하는 게 아니어도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유: 극장에서 모여서 작업하고, 책 읽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강의 시스템이 있거나 창작자들이 모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오극장이랑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와 합동 형식으로 시나리오 강의를 열었잖아요. 그때 느낀 게 대구에 영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거였어요. 수업 들었던 수강생 중 한 명은 그때 쓴 시나리오로 올해 다양성영화 제작자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분에게 <극장 쪽으로>를 찍은 촬영 감독을 소개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 오오극장이 분명 영화인들의 허브가 되고 있어요.

김: 계속해서 젊은 영화인이 유입되면 좋겠어요.

유: 저는 너무 원로인가요?



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웃음) 대구에서 새로운 영화인을 꾸준히 보고 싶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유: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 애정을 가진 영화인들이 점점 지역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여기 금방 판이 딱 깔린다고 확신합니다. 대구여성영화제 GV에서 지역영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수성못>을 찍고 대구에서 정착하면서 가와서 나오미를 롤모델로 해서 지역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주도의 오멸감독님, 춘천의 봄내필름(장우진, 김대환 감독)을 보며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대구에는 지역색이 없는 거예요. 장우진 감독도 대구가 어떻던 저의 질문에 “그냥 서울이던데?” 이럴 정도니까요. 지역색없는 대구 영화를 지역 영화라 부를 수 있는가? 지역색은 없지만 그 지역 영화인이 찍으면 지역영화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죠. 이를테면 장병기 감독의 <맥북이면 다 되지요>, 김현정 감독의 <나만 없는 집> 같은 경우 대구 감독이 찍었지만 대구의 지역색이 딱히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대구에서 고군분투하며 찍었다는 게 우리들 예겐 중요하고 의지가 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대구영화’라 불리는 것에 대해선 스스로 의문이 들어요. 지역색이 없다보니.

김: 대구 풍경이 나오면 대구 영화인가? 대구 사투리를 쓰면 대구 영화인가? ‘지역색’ 자체가 무어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드는 생각은 지역색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역색이 생겨야 하는 거죠.

유: 내가 굳이 대구에 있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기도 해요. 이야기를 쓰고 나면 어느 도시에서나 찍어도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대구에서 있기를 주장하지, 하는 의문이 따라붙어요. 어느 곳에서 찍어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제일 편한 곳에서 찍으면 되잖아요. 서울에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대구에서 찍으려면 부족한 장비, 인력이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연출가에 비해 PD는 적고요.

김: 못해도 7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매년 반복이 돼요.

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해요. 지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다수가 연출을 제외한 다른 기술 스태프를 서울에서 부르잖아요. 지역에도 PD나 촬영, 조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해요. 외부 인력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역영화라는 색채가 약해지지 않나 싶어요.

김: 원천 기술은 여기니까요. (웃음) 기술은 가져올 수 없잖아요. 시나리오랑 감독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저는 기술 발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고요.

유: 예전에 시나리오 발전 연구회에서 했던 단편 습작 상영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대구에 만든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분기별로 ‘대구 누벨바그’처럼, 오오극장 이름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극장에서 주최 및 상영을 하고요. 연출가들이 모여서 실험적인 대안 영화를 찍어보는 거죠. 영화제에 나가기 위한 잘 짜여진 영화가 아니고요. 이런 작업을 오오극장의 시그니처처럼 일 년에 몇 번 상영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들도 역량을 계속 키우고, 기술 인력도 늘어날 거고요. 대구 오오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인 거죠.

김: 실행을 위해선 지원사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아주 좋은 이야기란 생각이 들어요.

유: 프로그래머로서 갖고 계신 상영 기준도 궁금해요. 상영작에 프로그래머로서의 주관은 어느 정도 반영돼요?

김: 10% 정도? 일단 혐오, 차별이 보이는 영화는 빼려고 해요.

유: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뭐가 반영돼요?

김: 사실 틀 수 있는 영화라면 대부분 들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영화는 빼고요. 좋은 해외영화가 많다는 걸 알지만 저희는 국내 독립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구독립영화를 특히 더 많이 상영하고자 하고요.

유: <수성못>이 아직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김: 개봉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관객이 꾸준히 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유: 매주 일요일 마지막 회차 상영이라고 했죠?

김: 지난주에는 3명 관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 한 번씩 SNS에 소식을 검색해 보거든요. 최근엔 ‘대구에서 찍은 <수성못>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오오극장에서 ‘찍는 페미’ 강연도 했죠?

김: 3주년 때 했어요. 그 밖에 공동 기획으로 ‘보는 페미’ 상영을 매달 하고 있고요. 독립영화에서도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많이 보고,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극장에서 쿼터영화제와 사회복지영화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대구라는 지역이 갖는 가부장적인 인상이 있잖아요. 우리 극장에서도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여성이 만든 좋은 영화를 함께 보자고 목소리를 내고요.

유: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네요. 오픈지필름이랑 같이 하는 기획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 처음에 오픈지필름이 기획전을 제안했어요. 지금은 공동기획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오픈지필름은 단순히 배우전, 감독전이 아

나라 독특한 기획전을 해서 좋아요. 초창기에 기획전에 빛진 게 많아요. <문영>(김소연) 확장판도 오오극장에서 최초로 틀었어요. 3회 다 매진을 기록했구요.

유: 인터넷에서 대구 그리고 영화 얘기를 찾아 읽다가 ‘와 재밌다’ 싶어 글쓴이 프로필을 보면 항상 ‘오오극장 관객프로그램머’라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만큼 오오극장 관객프로그램머들의 재밌는 글이 SNS에 많아요. 관객프로그램머 활동 자체도 아주 활발한 것 같은데, 선발 기준이 있을까요?

김: 영화를 좋아하면 다 뽑아요. 8명을 뽑는데 40명 넘게 지원서가 왔어요. 면접을 통해 결정된 관객 프로그램머들이 1년 동안 함께 활동해요.

유: 관객프로그램머의 주요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김: 매달 한 번씩 직접 영화를 골라서 특별상영을 하고 GV를 진행해요. 일 년에 한 번씩 같이 영화제를 기획해요. 영화제 이름은 기획에 따라 매번 바뀌어요.

유: 관객프로그램머가 요청한 옛날 영화도 상영하더라고요.

김: 저희 극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관객 프로그램머의 기획을 존중해서 상영을 진행하려고 해요.

유: 오오극장의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김: 가장 귀여운 극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유: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요.

김: 저희는 만만한 극장이예요. 영화를 가져와서 틀고 싶다 하면 다른 극장에 비해 쉽게 들어줄 수도 있어요.

유: 만약 어떤 분이 자신의 10년 동안 만든 습작을 가져와서 틀어달라고 한다면요?

김: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괜찮다고 하면 당연히 틀어야죠.

유: 대관할 돈이 없어도요?

김: 어떻게든 틀어야죠. 정말 좋은 영화라면 극장 입장에서는 행운이죠. 유지영 감독이 더 유명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자랑할 거예요. 싸인 엄청 많거든요. (웃음)

유: 맞아요, 사람이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는 거니까.(웃음) 오오극장은 정말 자유롭네요. 자율성이 있고요.

김: 아무래도 극장에 상영을 제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만든 영화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면 스스로 기획한 영화제를 하는 것도 다 어려울 거예요. 오오극장은 문턱이 낮은 극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가령 학교에 있는 극장들은 학생들에게 개방적이잖아요. 오오극장은 대구 시민들에게 개방적인 거죠.

유: 오오극장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전에는 ‘일 년 더 하자’였잖아요.

김: 일 년 더 하자. 살아남자. 이거는 너무 옛날 구호예요. 말했듯이 만만한

극장이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극장에 올 때 다른 극장보다 더 편하게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오시는데 더 발전되면 좋겠죠.

유: 다른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이 지역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커뮤니티가 확장될 수 있겠어요. 지원이 많아지면 기획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서울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화제에서 두세 번 상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얼마 전에 일본 작은 극장들에 다녀왔는데 다들 개성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극장마다 다른 기획전을 하면 좋겠어요. 서울에서도 보러 오고 싶어 하는 기획전이요.

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유지영 단편전은 안해요?

김: <수성못> 상영할 때 했잖아요.

유: 단독으로요.

김: 작품 한 편 더 완성하시면 할게요.

유: 마지막으로 오우삼(오오극장에서 키우는 고양이)이 온 첫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김: 제가 지었어요. 오우삼이 온 첫 날에는 제가 없었어요. 여름이 시작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창문에 와서 울고 또 울었어요. 제가 사료를 사서 줬어요. 처음부터 극장에서 살았던 건 아니예요. 밥을 줘도 떠나지 않고 창문에서 계속 들어오고 싶은 듯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간택됐어요.

유: 고양이가 집사를 간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우삼을 오오극장의 마스코트로 만들어야 해요.

김: 우리 말곤 고양이 있는 극장이 없으려나요? (웃음) 앞에 고양이 있는 가게라고 팻말을 붙여 볼까 싶어요.

유: 우리 인터뷰 대표 사진도 오우삼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진행 / 유지영
녹취&정리 / 김민범
사진 / 이다은



오랜 시간 불을 밝히려는 마음

목포 시네마라운지MM



지난 3월, '시네마라운지MM'이 조용히 걷기 좋은 도시 목포의 시내 골목에 문을 열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문화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지역 활동가의 노력이 모여 만든 민간 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이다. 영화를 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행이라면, 이 공간은 일상과 여행 모두를 사로잡은 곳이다. 천천히 걸어가면 서해가 나오고, 바다 뒤로는 유달산이 보이는 옹기종기 소담한 산자락 마을을 지나면 독립영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관객도 일하는 사람도 서로 자연스러운 곳, 강의를 들으러 온 어린이들의 맑은 인사가 반겨주는 곳, 시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곳, 목포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공간 '시네마라운지MM'을 지키는 정성우 대표를 만났다.

목포 '시네마라운지MM'은 전남권에 최초로 생긴 민간 독립영화관이라고 들었다. 개관 과정이 궁금하다.

꽤 오래전부터 지역에 독립영화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양성영화를 사실상 목포에서는 전혀 상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상영을 하기는 했지만, 공간은 물론 상영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목포는 문화 향유에 대한 시민의 갈망이 높은 지역이다. 올해 목포에서 일곱 번째 인권 영화제를 여는데 열 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다. 지방에서 하는 인권 영화제 중에 꽤 큰 규모이다 보니 상영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는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영화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고 작년 7월부터 개관을 준비하게 됐다. 우리 영화관이 있는 곳이 목포의 원도심인데 서울로 따지자면 명동 같은 거리라고 보면 된다. 목포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였는데 최근 너무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다. 이런 배경 아래 목포시에서 도시 재생 차원으로 공간 인테리어를 지원해줬고, 올해 3월 9일에 개관을 하게 됐다. 나를 포함해 상시로 세 명이 일하고 있고, 총 여섯 명이 공간을 꾸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시네마라운지MM'은 어떤 의미인가?

'시네마라운지MM'의 정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MM'의 의미로 처음 생각한 건 '목포', '목원동' 이었는데, '무비(Movie)', '무브먼트(Movement)', '메이크(Make)' 등등 관객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처럼 이곳이 규정된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영화감독이자 영화관의 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어떻게 목포 지역에서 영화 활동을 하게 되었나?

고등학교 때까지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고, 비교적 젊을 때인 스물일곱 살에 다시 목포에 내려왔다. 문학을 전공해서 영화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영화 만드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 학교'에 다녔는데 그 뒤로 영화를 만들게 됐다. 목포에 내려오고 나서는 계속해서 영화 영상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시 학교에 가서 영화 연출 전공을 했다. 지금까지 쪽 영화 일을 하며 지내왔다.

'목포'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 지역 영화, 영화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목포와 한국 영화의 역사는 굉장히 밀접하다. 첫째로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 연관이 있다. 1920, 30년대부터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포 인구에 비해 영화관이 많이 있었다. 원도심만 하더라도 5~6개 정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목포가 수탈의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영화를 이용해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목포극장, 호남극장, 평화극장, 제일극장, 남일극장 등등 무척 많은 영화관이 근래까지도 남아 있었다. 둘째로는 문화 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망이다. 목포 출신 문학인이 많기도 하고 70, 80년대에 영화를 많이 찍었던 도시기도 하다. 바다도, 산도 있으니까 배경으로서도 훌륭하고, 지리적으로도 여러 섬과 연결되어 있고, 근대 역사 공간도 많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도 같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는 마지막까지 항쟁의 중심이 되었고, 호남의 상처를 목포 역시 많이 겪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 속 목포의 이미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목포가 배경인 '조폭' 소재의 상업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 그 이미지에만 편중된 것 같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 영화를 만드는데 말이다. 이런 이미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영화관의 주력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지방 소도시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에게 독립영화의 가치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상영과 관련된 활동가를 모아놓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제 중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영화관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였다. 공간을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 영화 상영뿐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관객층을 늘릴 방법이겠다 싶더라. SNS 홍보만으론 한계가 있고, 지역 시민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활동이 중요한 것 같다. 직접 와보면 공간의 낯섦이 사라질 테니까. 지역의 어떤 모임,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는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에서 6주 동안 지낸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매주 금요일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기, 사진 찍기 수업을 한다. 우리 건물 2층에 있는 어린이 극단 '아띠'의 사업 중 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간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 영화관에서는 관객 프로그래머를 모집 중이다. 관객이 영화를 직접 선택해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달 GV를 하지만 아직 목포에 GV 문화가 정착되지 않기도 했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초대하기 부담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조건에 맞는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류이치 사카모토: 코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를 초청해 음악 이야기를 진행했었고, <소성리>(박배일)는 사드 문제에 관심 있는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페미니즘 영화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같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연계해 진행을 해오고 있다. 그걸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와 독립영화관이 맞물려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역 독립영화관이 영화를 상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 문화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

인상 깊은 관객이 있다면?

우리 영화관에 아주 많은 관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웃음) 모두 인상 깊다. 서울에서 온 관객 한 분은 여행 중 우리 영화관에서 우연히 영화를 보고 나서 팻말을 제작해 보내주고, 휠체어 경사로를 만든다니까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굉장히 힘이 났다. 또 가까이 목포해양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 공간에 친구,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영화를 보더라. 지금 앉아계신 관객 두 분도 알아서 공간을 이용하지 않나.(웃음)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신다. 충성도 높은 관객 분들이 꽤 된다.

곧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열린다. 영화제 소개를 부탁한다.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는 영화관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영화제다. 2014년에 지금의 '오즈시네마'인 '오즈카페'에서 단편영화 다섯 편을 상영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됐다. "왜 이름이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예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국도 1호선이 원래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지금은 파주에서 끊겨있지만. 다시 국도 1호선이 신의주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제 이름을 지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신의주에서 독립영화제를 하자. 아니면 국도 1호선을 따라 지역 거점별로 계속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신의주까지 올라가 보자.'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다. 예산을 비롯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더 규모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필요한 것들이 많다. 5회를 맞은 올해는 3일 동안 영화제를 여는데 그중 '내 생애 첫 영화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 해에 1,400~1,500편의 장, 단편이 만들어지는데, 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면 만든 사람끼리만 보고 마는 일이 참 많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가치 있고,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번두리에 있다 보니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어려움에 공감한다. 그래서



로컬 섹션을 만들어 지역에서 만든 영화를 상영하려고 한다. 지방에서 뭔가 만들고자 하지만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 영화제가 큰 영화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같이 힘을 주고받는 의미에서 섹션을 구성했다. 폐막작은 작년에 박기용 감독이 목포 올 로케이션으로 찍은 장편 극영화 <목포의 눈물>이다. 목포 현지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해 만들었고, 우리 영화제가 첫 시사 자리가 될 것 같다. 4년 동안 연 독립영화제는 그 자체로 목포 시민에게 독립영화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제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영화의 가치나 공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나눌 기회가 되어 주었다.

'시네마라운지MM' 공간을 꾸릴 때 가장 신경 쓴 것이 있나? 직접 와보니 아기자기하고 영화관 특유의 무게가 없이 자유로운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관에 이동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결심했다고 들었다.

여기는 예전에 여행사와 일반 호프집이 있던 자리다. 원도심에 이만한 공간을 찾기가 힘들거든. 이렇게 꾸민 것은 우리가 자본이 없다 보니(웃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아닌 것 같은, 집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고민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할 수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시에서 월세를 2년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내년 12월에 시 지원이 끝나는데 우리가 월세 전체를 부담하면서 이 공간에 머물기는 힘들다.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고, 허름한 창고라도 확보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영화관에 장애인 단체 분들이 영화를 보러 오곤 한다. 모임도 있고. 비장애인에게도 영화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인데 장애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와서 직접 영화를 보면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영화관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상영관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서 매번 죄송스러운 지라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를 고민하게 됐다. 막상 공사를 하러니 금액이 적지 않게 들더라. 시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이런 체험이 장애인 이동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한 큰 원동력이다. 오늘 오전에도 촬영을

하고 왔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모르겠더라. 이런 부분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작을 마치는 게 목표다.

주변에 상점이 많다. 이곳 토박이로 장사해온 분들은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류가 있는지 궁금하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문구사 사장님은 항상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웃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가 한데,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잘 되면 좋겠다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라는 종이가 붙은 건물이 워낙 많고, 거리가 텅 비어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닌다.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우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는 공간이다. 작업 때문에 새벽 1~2시까지 머무를 때가 태반이기도 하고. 이 어두운 거리를 그나마 우리가 환하게 밝혀주고 있으니깐 다들 ‘제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정성우 대표에게 영화관, 혹은 독립영화관이란 어떤 의미인가?

동료들이 우리 독립영화관을 두고 ‘이 공간은 단지 상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중한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결국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가 발산되는 공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특히 독립영화는 상영관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아무도 내 영화를 틀어주지 않아도 이 공간에서 만큼은 틀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아, 딱 짚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들에게도.(웃음) 이 영화관을 찾는 분 중 한 30% 정도는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 타지 사람들이다. 우연히 들어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많이 건다 보니 힘들어서 쉬려고 들어오시기도 하거든.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영화를 혼자 볼 수 있는 기회도 많다.(웃음) 온전한 휴식의 공간,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달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전남의 동학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잘 만들어야겠지. 독립영화관 운영 면에선 좀 더 많은 관객이 공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싶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전문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지만 나름대로 내실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고민이 있다. 또 하나, 이 안에서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자생을 위한 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변두리 문화가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고,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인터뷰를 통해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목표의 작은 영화관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글&사진 / 유정미





윤성현, <파수꾼>
2011 / 117min / 극영화
출연: 이재훈, 서준영, 박정민

우리는 아직도 소년이기에

큰일이다. 마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앞의 화면 위에는 껌뻑이는 커서 뿐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는 단 한 편의 영화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고를 써줄 수 있냐는 청탁에 흔쾌히 그러겠노라 응해버렸는데, 그 후에 코너 설명을 듣게 되었다. <때로는 그리운 첫사랑이, 특별한 추억이, 다정한 조연이 되었던 사사로운 독립영화 리스트>라니.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을 때 인디스토리 사람들은 내게 “첫사랑이 있긴 하죠...?” 라고 물었다. 환장할 노릇이다.

태어나기를 간지러운 감정과는 멀게 태어난지라, 조금은 메마른 글이 될 수도 있음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고심 끝에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은 꽤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에 ‘소개’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겐 마음속 가장 은근한 곳에 위치해 한순간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한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같이 얼굴을 비추었던 작품. 윤성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 <파수꾼>(2010)이다.

<파수꾼>은 ‘기태’의 자살로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뒤쫓아 아들의 친구들을 만난다.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던 ‘희준’은 전학을 갔고, ‘동윤’은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다. 이제 이 영화는 서로가 전부였던 세 명의 소년에게 벌어진 사건을 쫓아간다. 코너의 소개 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영화가 그리운 첫사랑이, 특별한 추억이, 다정한 조연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영화가 내게 강렬함으로 남을 수 있었던 까닭을 몇 단어로 나열하자면 ‘소년성, 관계, 흔들림, 알음’ 정도일 것이다. 소년(그리고 소녀가) 갖게 되는 알팍한 관계는 거센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아서 맹렬하게 흔들린다. <파수꾼>은 근방으로 불을 옮기고 크기를 키워 환한 빛이 되리라 믿었던 촛불이 어이없게도 흔들리다가, 흔들리다가, 기어이 꺼지고야 마는 모습을 더없이 선명하게 담아냈다.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에는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에 서 있었기에 그 시기의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도드라지는 ‘소년성’에 그토록 공감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어른으로 분류되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소년성’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특성이 ‘관계’에서 기인하기 때문 이리라. 예컨대, 복도에서 ‘기태’가 ‘희준’에게 장난스레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며 ‘희준’을 끌어당기지만 ‘희준’은 ‘기태’의 사과를 거절한다. ‘기태’의 사과가 거절당하는 그 짧은 순간 주변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고, 보고 있는 나 역시 그 장면에선 언제나 심장이 덜컥한다. 그들을 화면으로만 접할 뿐임에도. 비단 열여덟, 열아홉에만 관계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에 다시 마주한 장면은 오히려 공포에 가깝다.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이제는 ‘희준’에게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태’와 ‘희준’의 관계에서 ‘희준’은 약자인 듯 보이지만 분명하게도 이 영화에서 가장 강한 인물은 ‘희준’이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을 수 있는, 약자가 되어버린 관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희준’. 그를 다시금 발견했다는 것은 열아홉과 스물의 경계에 있던 나와 지금 나의 간극이자 이 영화를 다시 보아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영화가 선택한 알은 심도와 흔들리는 화면은 소년인 그들의 관계를 미장센으로 보여준다. 이를 대학 시절 내내 닳고 싶어 맹렬하게 쫓아다녔으나, 결국 닿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내게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첫사랑이다가, 다시금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추억이다. 그리고 아직도 자주 상처 받음에 좌절하는 내게 상처는 상처일 뿐, 성장을 가져오는 아픔과 상처는 없음을 조연하는 영화다.

<파수꾼>이 내게 단 하나의 독립영화가 된 것은 영화가 담고 있는 ‘소년성’이 사실은 소년이기에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을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만 있으면 돼”와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수많은 기태와 희준과 동윤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아팠음에도 성장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한 장의 일기가 여기 적혀 있다고. 그리고 아직 그 일기를 보지 못하였다면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하루 빨리 <파수꾼>을 만나보라고.

글 / 이나현 (독립영화사 (주)인디스토리 국내배급팀)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감히, 완전한 독립시스템을 꿈꾸며

<춘천, 춘천>을 2015년 10월 중순에 크랭크인하여 2018년 9월 말에 개봉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써보고자 한다. <춘천, 춘천>은 영화제작부터 배급까지의 전 과정을 독립시스템 안에서 해결하였다. 자세히 말하자면 총제작비(순제작비+P&A)를 사비 또는 배급 전까지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하였다. 그 지난한 과정은 모두 겪고 있을 것이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생각. 다만, 최근에 시도하지 않은 방식 그리고 느낀 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운이 좋게도 사비를 털어 감독을 포함한 3명의 스태프만으로 장편 극영화를 완성했다. 과정 또한 행복했고 영화적 순간들을 다 함께 경험했다. 하지만 개봉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를 한 후 2년이 지나서야 극장을 통해 일반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개봉에 필요한 P&A전액은 모두 부가판권 수익을 재투자하였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저 우리 '봄내필름' 입장에서 새로운 경험과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서울 단관 장기상영이라는 시도를 해 보기로 했다. 우리의 제안을 배급사(무브먼트)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선뜻 동참하면서 2018년 9월 개봉이 결정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개봉 전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단관개봉이기에 관객이 분산되지 않고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모인다는 것이 창작자와 관객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영화를 보러 왔다가 인디스페이스에서 만나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독립영화 배우, 감독, 시네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그나마 가깝고 운 좋게 시간이 맞는 상영관에서 홀로 또는 둘이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모습을 감히 상상해보기도 했다. 관객수는 많을수록 좋으니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할순 없겠지만 총제작비가 적은 영화에겐 이런 추억이 큰 힘이 될 것 같다. 개인

적인 바람은 이런 시도가 더 많아지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새로운 관객 유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씨네21』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독립영화 감독을 만나게 됐다. 2018년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아시아프라이드 섹션 초청단편, <칼랑코에의 꽃>의 '나카가와 슌'이다. 그는 내게 일본의 독립영화 개봉 환경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상당히 부러운 구석이 많았다. 일본엔 약 100개의 40~50석 규모 작은영화관(Indie Theater)이 전국에 분포해 있고 이들 대부분은 30년 이상 운영한, 오래된 영화관이라 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되지 않는 상업영화와는 다른 영화적 가치가 있거나 개성 있는 작품을 찾는 관객이 대부분이고, 평균적으로 작은영화관 좌석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관객들로 찬다는 것이다. 나카가와 슌의 영화 또한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도쿄의 인디 영화관 1곳에서 시작해서 10월 당시 5곳에서 상영되고 있고 관객수는 3000명이 넘었다고 했다. 그 역시 제작부터 배급까지 완전한 독립시스템으로 영화를 완성하였다.

국내에도 31개의 작은영화관이 있지만(<http://scinema.org/cinema-list> 기준) 상영작 중 국내 독립영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 작은영화관 역시 한국 독립영화의 여러 가지 새 시도에 동참하여 다양성 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작은영화관을 포함한 국내 독립예술전용관이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기를 또 수많은 창작자들이 완전한 독립시스템 내에서 꾸준히 영화를 만들 수 있기를 감히 상상해 본다.

글 / 장우진 감독
<춘천, 춘천> 감독, 춘천을 기반으로 한 영화제작사 '봄내필름'에서 활동한다.



서울독립영화제2018 특별기획전

— 독립영화 아카이브 : 복원을 시작하다

공동주최

22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 초기 독립영화 복원을 시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독립영화 아카이브 : 복원을 시작하다' 특별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필름영화의 수명과 보존뿐 아니라 필름작품의 상영 공간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한국영상자료원은 2000년 SD텔레시네를 시작으로 디지털 복원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4K 기반의 디지털 복원도 가능해져, 복원을 거친 영화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른 세대의 관객을 만나며,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기획전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총 7편입니다. 이익태 감독의 <아침과 저녁사이>, 장길수 감독의 <강의 남쪽>, 장산곶매 제작의 <파업전야>는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뜨거운 이슈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침과 저녁사이>를 시작으로 둔다면 한국 독립영화사는 50년 가까이 확장됩니다. <파업전야>에 방점을 찍는다면 운동으로써의 사회적 스피릿에 무게가 실립니다. 80년대 영화운동의 맹아를 쥐고 있는 <강의 남쪽>, 90년대 초중반 젊은 작가 발굴의 산실이 되었던 서울단편영화제의 주인공 <우중산책>, 여성주의를 표방하며 제작과 배급의 험한 길을 개척해 나갔던 <낮은 목소리> 시리즈, 2000년대 전국적 독립영화 커뮤니티와 예술영화관 정책이 결합한 성과 <송환>까지 많은 논제를 품고 있는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아카이브 1]



<아침과 저녁사이> 이익태
| 1970 | Experimental
| B&W | DCP | 20min

한 청년이 자명종 시계 소리에 일어나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누워있다. 그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 공원에서 다른 여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그는 서울역 부근에서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하여 정사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방으로 되돌아 온 그는 다른 여자에게 받은 물건을 방에 있는 처음의 여자에게 건넨다.



<강의 남쪽> 장길수
| 1980 | Fiction | B&W
| DCP | 10min

1980년 한강의 남쪽에는 공사가 한창이다. 사람과 기계가 뒤엉켜 땀을 흘리고 있다. 화면을 스쳐가는 '새서울 교회'의 간판. 새로운 서울을 위해 땀을 쏟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의 공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판자로 지은 선술집에서 아낙네가 뛰쳐나오고 한 사내가 칼을 들고 쫓는다. 삶에 찌들린 부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우중산책> 임순례
| 1994 | Fiction | Color
| DCP | 13min

평범한 노처녀 정자는 변두리 극장 대표원이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극장을 비울 수 없는 정자는 극장에 찾아오기로 한 맞선 상대를 하루 종일 기다린다.

[아카이브 2]



<파업전야> 장동홍, 장윤현, 이재구, 이은기
| 1990 | Fiction | Color
| DCP | 107min

동성금속의 200여 명의 단조반원 중 한수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다.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봉제공장에 다니는 미자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한편 김 전무는 노조 결성에 대비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고, 한수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주인에게 회사 편에 선 노동자로 포섭된다.

[아카이브 3]



<낮은 목소리 2> 변영주
| 1996 | Documentary
| Color | DCP | 70min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할머니들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여성임을 확인하며, 우리는 습관처럼 굳어진 슬픔을 삶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할 의지를 소중히 간직하게 된다.

[아카이브 4]



<낮은 목소리 3 - 숨결> 변영주
| 1999 | Documentary
| Color | DCP | 77min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의 완결편. 7년 작업의 매듭으로써 1, 2편이 고통의 기원을 거쳐 할머니들의 일상으로 나왔다면, <숨결>은 다시 그들의 일상을 빌려 과거로 들어간다. 내레이션이나 음악 따위의 장치를 지워내고 할머니들 스스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가혹한 역사 속에 뭉개진 그들의 목소리를 나지막히 되살려냈다.

[아카이브 5]



<송환> 김동원
| 2003 | Documentry
| Color | DCP | 148min

1992년 봄, 감독인 '나'는 북의 정치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체포되어 30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도 공산주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향으로 출소한 장기수들을 알게 된다.

* 시네토크(CT) 일정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ART1)

일시	섹션	상영작
12/2(일)	15:00	아카이브2 <파업전야>(장동홍, 장윤현, 이재구, 이은기)
	19:40	아카이브4 <낮은 목소리3 - 숨결>(변영주)
12/3(월)	19:30	아카이브5 <송환>(김동원)
12/4(화)	18:30	아카이브1 <아침과 저녁 사이>(이익태) <강의 남쪽>(장길수) <우중산책>(임순례)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미디어엑트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에무시네마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자체휴강시네마
 카페 공드리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강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속초 동아서점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북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그)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거핀
 광주독립영화관 GIFT
 순천 책방심다
 목포 시네마라운지 MM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대구영상위원회
 안동 중앙극장
 대구 오오극장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움

NOW NO.17 2018.11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송요, 김지은, 이나현, 이은지
 담당 김송요
 디자인 유정미
 진행 김지은 이채현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문의 02-362-9513 / 02-334-3166 / siff@siff.kr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